

단국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인문 계열 가이드 답안
(오전)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1)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2) [가]와 [나]가 지향하는 사회를 위하여 [다]에서 제시한 방안을 각각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3)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와 [마]의 등장인물 ‘보위부 군관’과 ‘아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글에서 제시한 방안을 각각 설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1] “가치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점·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와 관련된다.
-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갈등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추론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 [나]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8) 세계화와 평화’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 ‘(4) 사회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 04-06] “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원칙 및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 ‘(6) 국제 관계와 한반도’ 영역의 성취기준 [12정법06-01] “오늘날의 국제 관계 변화(세계화 등)를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탐구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 [마]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 ‘(4) 문학에 관한 태도’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5)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인간의 삶에서 평화를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인간평화와 보편평화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는 글이다. 2018년 5월 16일 『한반도평화만들기(Korea Peace Foundation)』에 실린 박명림의 칼럼 「인간평화·보편평화를 향하여」에서 발췌한 것이다.
- 제시문 [나]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설명한 글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세계화와 평화’ 부분의 ‘국제 사회의 모습과 평화의 중요성’에서 발췌한 것이다.
- 제시문 [다]의 (자료1)은 묵자의 겸애 교리 사상을 설명한 글이다. 『2026학년도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화법과 작문』의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료2)는 에라스무스의 평화 사상을 설명한 글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세계 시민과 세계 평화는 실현 가능한가?’ 부분의 ‘동·서양의 다양한 평화 사상’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료3)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설명한 글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지구촌 평화의 윤리’ 부분의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료4)는 볼테르의 관용론을 설명한 글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부분의 ‘소통과 담론의 윤리’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 제시문 [라]는 전쟁 중 보위부 군관의 폭력에 희생당한 오빠와 그로 인해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가족을 다룬 소설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부분에 수록된 「엄마의 말뚝 2」에서 발췌한 것이다.

- 제시문 [마]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인물들의 대립을 통해 전쟁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공감의 필요성에 대해 다룬 소설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문학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 부분에 수록된 「썬짜오, 썬짜오」에서 발췌한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한반도평화만들기』, 「인간평화·보편평화를 향하여」, 2018. 5. 16.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60쪽 관련.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245, 249쪽 관련.
 -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257쪽 관련.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246쪽 관련.
- [나]: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252~253쪽.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56쪽 관련.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244쪽 관련.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31쪽 관련.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238~239쪽 관련.
- [다]: 변순용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209쪽.
 변순용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206~207쪽.
 전종희 외(2025), 『2026학년도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화법과 작문』 136쪽.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192쪽.
 - 김국현 외(2018),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비상, 104쪽 관련.
 - 박찬구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씨마스, 211쪽 관련.
 - 정탁준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5쪽 관련.
 - 황인표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215쪽 관련.
- [라]: 최원식 외(2019), 『고등학교 문학』, 창비, 186~195쪽.
- [마]: 류수열 외(2019), 『고등학교 문학』, 금성출판사, 299~303쪽.

□ 문항 해설

1)번 문항 해설

-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박명림의 칼럼 「인간평화·보편평화를 향하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 글은 냉전·열전·정전의 역사를 거처온 한반도 분단의 문제를 계기로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평화의 개념을 논한다. 저자는 평화를 인간 삶의 필수재로 정의하며, 평화를 여섯 가지(내면평화와 외면평화, 개인평화와 사회평화, 나라평화와 세계평화)로 구분한다. 그러나 앞선 모든 평화

는 궁극적으로 개별 생명의 평화를 보장하는 인간평화와 모든 사람의 평화를 보장하는 보편평화에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평화와 보편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는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전자는 국내외적으로 전쟁, 분쟁, 테러, 범죄 등이 없는 상태를, 후자는 기아, 빈곤, 억압, 차별 등이 없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인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포괄한다. 저자는 소극적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지기 쉽기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인류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번 문항 해설

- 1)에서 요약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가]와 [나]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사회를 위하여 [다]의 방안들을 각각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의 (자료1)은 목자의 겸애 교리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목자는 전쟁과 같은 갈등이 별 애에서 기인한 불상에 때문이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겸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겸애가 이루어지면,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짐을 뜻하는 교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 [다]의 (자료2)는 서양의 평화 사상 중 에라스무스의 평화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불화와 갈등의 근본 원인이 탐욕과 야망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평화는 인간 상호 간의 우애이며, 또한 모든 선의 근원이라고 파악한다. 때문에 에라스무스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자, 성직자 등이 분쟁을 겪고 있는 자들 사이의 중재를 돕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다]의 (자료3)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설명하고 있다. 칸트는 영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영구 평화 조항을 제시한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한 공통의 법을 따르는 공화 정체인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이러한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근거해야 한다. 셋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칸트는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각국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평화 연맹을 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 [다]의 (자료4)는 볼테르의 관용론을 설명하고 있다. 볼테르는 보편적인 이성을 통해 스스로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상대를 용인하고 용서하는 관용의 미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보편적 이성을 지닌 인간은 서로를 관용함으로써 종교적 대립 등 사람들 사이의 갈등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3) 변 문항 해설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와 [마]의 등장인물 ‘보위부 군관’과 ‘아빠’의 문제점을 설명하
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여 서술하고, [다]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항이다.
- [라]는 6.25 전쟁 중 인민군 보위부 군관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
설의 한 장면이다. ‘나’의 오빠는 전쟁 당시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의용군에 지원했
다가 탈출하여 돌아온다. 전세가 불리해져 피란을 가야 할 상황에서 가족들은 실어증에 걸
린 오빠와 예전에 살던 현저동에 숨어 지내게 되는데, 보위부 군관에게 발각된다. 보위부
군관은 ‘나’의 집에 드나들며, 오빠가 인민군의 도망자나 국방군의 낙오자가 아닌지 대담하
라고 위협하고 회유한다. 포성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보위부 군관은 오빠를 폭력적으로 대
하며 대담을 요구하지만, 답변을 하지 못하자 총으로 쏜다. 이후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가]와 [나]에서 제시된 ‘보편평화’와 ‘소극적, 적극적 평화’
의 관점에서 보면 ‘보위부 군관’은 오빠에게 직접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보편평화’는 물론
‘소극적, 적극적 평화’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 [마]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나’의 가족과 튀이네 가족이 갈등 상황에 놓인 모
습을 보여주는 소설의 한 장면이다. 아빠의 직장 때문에 독일에서 살게 된 ‘나’의 가족은 아
빠의 직장 동료이자 이웃인 베트남인 호 아저씨 가족과 가깝게 지낸다. 어느 날 저녁 두 가
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나’는 우리나라(한국)가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튀이는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엄마의 가족을 죽였다고 말하고, 튀이 엄마인
응웬 아줌마도 이를 확인시켜 준다. 이를 시작으로 두 가족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고 엄
마는 몰랐다고 사과한다. 하지만 아빠는 응웬 아줌마에게 사과 대신 ‘우리 형도 그 전쟁에
서 죽었다고 말하며 튀이네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이
후 두 가족은 서먹한 관계가 된다. [가]와 [나]에서 제시된 ‘보편평화’와 ‘소극적, 적극적 평
화’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직접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 상태이지만, ‘아빠’는 튀이네 가
족이 입은 피해와 상처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 채점 기준

1번) 채점 기준(15점)

-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가]에서 ‘필수재’ 등의 핵심 단어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인간 삶에 있어서 평화의 중요
성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점.
- [가]에서 ‘인간평화’, ‘보편평화’ 등의 핵심 단어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

- [가]에서 '인간평화', '보편평화'를 지향해야 함을 설명하면 0~1점.
- [나]에서 '소극적 평화'의 정의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
- [나]에서 '적극적 평화'의 정의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
- [나]에서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

2번) 채점 기준(20점)

- [가]와 [나]가 지향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에서 제시한 방안을 각각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가]와 [나]는 모든 개인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겪지 않는 보편적, 적극적 평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부분적으로, 모든 사람의 평화인 보편적 평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하면 0~2점, 직접적 폭력만이 아닌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하면 0~2점을 부여함.
- [다]에서 목자가 말하는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며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겸애 교리', 에라스무스가 말하는 '전쟁을 막기 위한 중재 제도의 필요성', 칸트가 말하는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방 체제와 국제법을 통한 영구적 평화', 볼테르가 말하는 '보편적 이성을 통해 파악한 관용의 자세'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6점을 부여함. (각각의 설명에 대해 0~4점을 부여)

3번) 채점 기준(20점)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의 등장인물 '보위부 군관'과 [마]의 등장인물 '아빠'의 문제점을 설명하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라]에서 '보위부 군관'이 '오빠를 의심해 압박하며 총으로 쏘는 것'을 '직접적 폭력', '물리적 폭력'으로 표현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소극적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문제'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마]에서 '아빠'는 '투이네 가족이 베트남 전쟁에서 입은 피해와 상처'에 대해 '공감', '이해', '화해'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이로써 '소극적 평화 상태에 있지만 적극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문제'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라]와 [마]에서 '보위부 군관'과 '아빠'의 공통된 문제점인 '모든 인간이 평화로워야 한다는 보편평화'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다]의 (자료1)~(자료4)를 활용해 [라]의 '보위부 군관'과 [마]의 '아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겸애 교리의 자세를 갖는 것'과 '서로를 용인하고 용서하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평화를 해치는 전쟁을 막기 위해 '분쟁 당사자들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와 국제법'을 통해 '보편적 우호의 관계를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 [가]는 평화를 인간 삶의 필수재로 정의하며, 다양한 층위의 평화를 소개한다. 궁극적으로 [가]는 개별 생명의 평화를 보장하는 인간평화와 모든 사람의 평화를 추구하는 보편평화를 지향할 것을 주장한다. [나]는 전쟁이나 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인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구분하고, 지속적인 인류의 번영을 위해 모든 이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48자)

2번) 예시 답안

- [가]와 [나]는 모든 개인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겪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묵자는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며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겸애 교리를 제안한다. 에라스무스는 평화를 모든 선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평화를 해치는 전쟁을 막기 위해 학자나 성직자 등이 중심이 된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칸트는 영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자유로운 공화정 국가들 간의 연방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보편적 우호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볼테르는 보편적인 이성을 통해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용인하고 용서하는 관용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53자)

3번) 예시 답안

- [라]에서 보위부 군관은 오빠를 전쟁 낙오자로 의심해 압박하다 총으로 쏜다. 이는 직접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소극적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마]에서 아빠는 투이네 가족이 베트남 전쟁에서 입은 피해와 고통을 말하지만 공감하지 못한다. 이는 소극적 평화 상태에 있지만 적극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인물은 모든 인간이 평화로워야 하는 보편평화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공통의 문제점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겸애 교리와 서로를 용인하고 용서하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 평화를 해치는 전쟁을 막기 위해 분쟁 당사자들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와 국제법을 통해 보편적 우호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408자)

문제 2

□ 출제 의도

- 1)번 문항은 제시문 [가]의 (자료1)~(자료4)에 나타난 고령화 문제를 제시문 [나]의 ‘통합적 관점’인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2)번 문항은 [다]에서 제시한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인 ‘정년 연장 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장을 [라]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5) 현대의 사회 변동’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5-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통계청 홈페이지』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268쪽 관련.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고령화시대의 공간정책 방향과 실천전략」, 2014. 10. 20.
 -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276쪽 관련.
- 『경찰청 홈페이지』
 -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276쪽 관련.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263쪽.
- 『OECD 홈페이지』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263쪽 관련.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손영찬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189쪽 관련.
『나우앤서베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해결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2019. 11. 8.
유병돈, 「2030 러시... 경기도 '고령화' 서울·인천보다 느리다」, 『경기일보』, 2016. 11. 10.
- 손영찬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189쪽 관련.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 「권역별 노령화」, 2019. 11. 8.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5쪽 관련.
- 손영찬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189쪽 관련.
- [나]: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15쪽.
 -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17쪽 관련.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5쪽 관련.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16쪽 관련.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8쪽 관련.
- [다]: 이우림, 「세대갈등 조장 vs "고령화 대비해야" 핫이슈된 '장년연장」, 『중앙일보』, 2023. 8. 23.
- [라]: 『한국경영자총협회』, 「60세 초과 정년연장 부담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2025. 9. 19.
 - 손영찬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189쪽 관련.
 - 신형민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178쪽 관련.
 -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91쪽 관련.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83쪽 관련.
 - 김영순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92쪽 관련.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268쪽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 조사」, 2025. 9. 27.
 - 손영찬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189쪽 관련.
 - 신형민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178쪽 관련.
 -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91쪽 관련.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83쪽 관련.
 - 김영순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92쪽 관련.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268쪽 관련.
- 김현주, 「30만원도 못 받는 부모들... "이젠 자식도 여유 없다"」, 『세계일보』, 2025. 10. 8.
 -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273쪽 관련.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73쪽 관련.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75쪽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22, 6월호」, 2022. 6. 1.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73쪽 관련.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75쪽 관련.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5월 고령층 부가조사 2021」, 2021. 5. 2.
 -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273쪽 관련.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73쪽 관련.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75쪽 관련.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268쪽 관련.
- 『보험연구원(KIRI)』, 「KIRI 리포트 이슈분석」, 2024. 4. 22.
- 육근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75쪽 관련.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268쪽 관련.
-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 「노후자금 준비 수준 조사」, 2020. 5. 1.
-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73쪽 관련.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268쪽 관련.
- 『한국경제연구원』,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2021. 9. 13.
-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정책포럼 제277호」, 2020. 5. 14.

□ 문항 해설

1)번 문항 해설

- [나]는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있어 ‘통합적 관점’인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등 세부적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지문에서는 통합적 관점의 정의와 통합적 관점이 가지는 종합적 이해의 관점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두 번째 지문에서는 화장장 건설이라는 주제를 예시로 하여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 [가]는 고령화 관련 자료들이 [나]의 통합적 관점의 각 세부 관점들과 연계가 됨을 제시한다. [가]의 (자료1)은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은 현상을 보여주며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제도 미비함을 보여주어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자료2)는 2060년에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고령자 1명당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짐과 동시에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시간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시한다. (자료3)은 고령화가 지하철의 무임승차 증가에 따른 적자를 야기하는 현상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대한 보편적 규범 의식 변화에 따른 윤리적 관점의 문제를 제시한다. (자료4)는 권역별 노령화에 있어 강원, 경상, 전라권 지방이 수도권 대비 높으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낮은 현상을 통해 공간적 관점에서 문제 현상을 제시한다.

2)번 문항 해설

- [라]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아 [다]의 정년 연장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 [다]는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정년 연장 제도 도입에 대하여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고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찬성의 입장과 청년 구직난 어려움 증가와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인한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음을 제시한다. [라]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자료1)은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조사를 통해 58.2%의 기업이 부담된다고 한 것과, 고령자가 높은 인건비로 인한 인력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통해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2)는 고령자의 직종 분포에 있어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에 분포가 몰려 있음을 제시하며 고령층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함을 제시함으로써 찬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3)은 50대의 은퇴에 대한 대비 정도와 노후 자금 준비 수준이 낮음을 제시하며 정년 연장의 찬성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자료4)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며 고령 고용 1인 증가에 따라 청년 고용은 0.2명 줄어들게 됨을 제시하여 반대의 근거를 제시한다.

□ 채점 기준

1)번 채점 기준(25점)

- (자료1)에서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행복지수가 70대에 급격히 낮아지고, OECD 국가대비 65세 이상 자살률이 높으며,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아진다는 점을 사회적 제도와 법의 미비를 근거로 통합적 관점의 세부 관점인 사회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2)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 1960년대 유소년층이 가장 많다가 2015년 청장년층이 가장 많고 2060년에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령자 1명당 생산 가능 인구는 2014년 대비 2036년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로 시간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3)에서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증가에 따른 적자로 인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적 규범의식 변화에 따른 윤리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4)에서 권역별 노령화에 있어 강원, 경상, 전라권 지방이 수도권에 비하여 높으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서울, 인천에 비해 가장 낮은 현상을 통해 공간적 관점에서 문제 현상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종합적으로 [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고령화 문제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통합적 관점에 근거하여 하나의 자료에 하나의 세부 관점이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여 설명하며, 논리적이고도 충실하게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세부 기준	점수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네 개 다 맞고 통합적 관점에서 논리적이고도 충실하게 설명한 경우	25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네 개 다 맞게 활용한 경우	20~24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세 개 맞게 활용한 경우	15~19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두 개 맞게 활용한 경우	10~14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한 개 맞게 활용한 경우	5~9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전부 맞지 않고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0~4점

2)번 채점 기준(20점)

- (자료1)에서 60세 초과 정년 연장 부담 여부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의 결과 58.2%의 기업들이 부담을 가진다고 답한 것과 높은 인건비로 인한 고령자 인력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 제도에 대한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자료2)에서 연령대별 직종 분포에 있어 고령자는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고, 일자리 유지자 대비 일자리 이직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이 크게 높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고령자 고용률과 별개로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바탕으로 정년 연장 제도에 대한 찬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자료3)에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기간(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설명, 은퇴에 대비한 정도 및 노후 자금 준비 수준이 낮음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 제도에 대한 찬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자료4)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64%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고령 고용 1인 증가에 따라 청년 고용이 0.2명 줄어든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는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탕으로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종합적으로 [라]의 자료들을 정년 연장 제도의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자료1), (자료4)를 반대의 근거로, (자료2), (자료3)을 찬성의 근거로 설명하며 논리적이고도 충실하게 의견을 전개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세부 기준	점수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네 개 다 맞고 논리적이고도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한 경우	20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네 개 다 맞게 활용한 경우	16~19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세 개 맞게 활용한 경우	12~15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두 개 맞게 활용한 경우	8~11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한 개 맞게 활용한 경우	4~7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전부 맞지 않고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0~3점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 [가]는 고령화 관련 자료들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며 [나]는 사회 현상 탐구를 위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4가지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가]의 (자료1)은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음을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로 제시하고, (자료2)는 2060년에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고령자 1명당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낮아짐을 시간적 관점에서 문제로 제시한다. (자료3)은 우리나라 지하철의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대한 보편적 규범 의식의 변화를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로 제시하고, (자료4)는 권역별 노령화에 있어 지방이 높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낮은 현상을 통해 공간적 관점에서 문제 현상을 제시한다. (397자)

2번) 예시 답안

- 정년 연장 제도 도입은 [라]의 (자료2)와 (자료3)을 근거로 찬성할 수 있다. (자료2)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고령자는 단순노무직, 기능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해서 찬성의 근거가 된다. (자료3)에 따르면 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소득 크레바스 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찬성의 근거가 된다. 반면 정년 연장 제도 도입은 (자료1)과 (자료4)를 근거로 반대할 수 있다. (자료1)에 따르면 기업은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해 58.2%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주된 이유로 높은 인건비를 들어 반대의 근거가 된다. (자료4)에 따르면 고령 고용 1인이 증가하면 청년 고용은 0.2명이 줄어들어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의 근거가 된다. (391자)